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및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결과

- 구윤철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참석, 중동전쟁 충격에 대한 정책대응과 AI 전환기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공조를 위한 IMF의 역할 당부
-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글로벌 불균형·핵심광물 등 특별세션 참석, 주요 20개국(G20)·다자개발은행과의 연계 강화 등 논의
-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면담, 중기 재정건전성 기조 하 한국의 정책 대응에 대한 이해 공유 및 취약국 AI 역량개발 협업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하 구 부총리)은 4.17(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특별세션 및 국제통화 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였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하였다.

【 ①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사국 대표(Governor) 자격으로 참석하여, 최근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정책 대응,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된 IMF 총회(Board of Governors) 자문기구(매년 4월, 10월 개최)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정책방향*(GPA)을 통해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응의 필요성과 글로벌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G**lobal **P**olicy **A**genda : IMF가 매년 2회(4월, 10월) 발표하는 IMF의 주요 정책방향

구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약부문을 지원해야한다는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공감하며, 한국도 국가부채의 확대 없이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AI 전환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개발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역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②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특별세션 참석 】

구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①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과 ②핵심광물(Critical Mineral) 등 2개 특별세션에 참석하여 미국·일본·등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G7-G20간 연계 강화 및 다자개발은행의 핵심광물 협력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구 부총리는 특정 국가만이 아닌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동시에 노력이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가진 국가·경제권이 AI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확대,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에 앞장선다면 중견·신흥국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공급망은 여전히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므로 문제 인식을 넘어 각 국가간 실행 중심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역시 다자개발은행에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관련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③ 국제통화기금 총재 면담 】

구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만나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최근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인 글로벌 AI 허브를 중심으로 취약국의 AI 혁신역량 개발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이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 구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취약국 AI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배경화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송기선 (steamship@korea.kr)
		담당자	사무관	원종혁 (gur2794@korea.kr)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책임자	팀 장	최문성 (044-215-4840)
		담당자	사무관	안미진 (heungmi jinjin@korea.kr)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	책임자	팀 장	채원혁 (044-215-7890)
담당자		사무관	이태수 (taesulee@korea.kr)	

